

방하남 고용부 장관 공식 취임

방하남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식에서 방하남 장관은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고용노동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행정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 장관은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간 정책협의·조정을 강화하여 안전보건의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산업현장 역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시간 근로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정현옥 前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가 선임됐다. 정 신임 차관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산업안전보건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에 '안전관리본부' 신설

안전행정부에 제2차관 직속으로 안전관리본부가 신설된다. 이 본부는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의 '안전행정부와 소속기관 직제개편'에 따르면 안전관리본부는 제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그동안 재난 안전·비상대책 정책 수립 시 참모 기능을 했던 2개 국 규모의 '재난안전실'에 지역발전정책국 소속 인력을 일부 흡수시켜 정부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지휘하는 조직으로 위상이 강화된다.

안전관리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사회적 재난 대응과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대비 및 조정을 담당할 방침이다. 본부 산하에는 안전정책국이 신설되고, 기존 재난안전관리관과 비상대비기획관은 재난관리국과 비상대비기획국으로 각각 격상된다. 안전관리본부는 안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현실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봄철, 체육행사 사고와 뇌심혈관계 질환 가능성 급증

봄철, 산업현장에서 재해발생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체육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은 최근 '봄철 산업재해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봄철 일터에서 체육행사로 인한 사고와 뇌심혈관계 질환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460,424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8개 재해유형 중 체육행사로 인한 사고(37.84%)가 봄철에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뇌혈관계 질환(32.92%), 진폐(28.8%),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히는 사고(27.94%),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재해(27.88%)의 순으로 조사됐다. 진폐의 경우 과거 유소견자의 봄철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체육행사 중 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봄철 야외행사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고가 고르지 못한 노면 상태에서 사람과의 충돌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체육행사 시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고, 행사 전 스트레칭 실시, 무리한 동작이나 음주 금지 등의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육행사 사고 다음으로 봄철 재해발생률이 높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공사 등이 본격화되는 건설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환절기 큰 기온 차와 함께 겨울철 위축되었던 신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 속에 과도하게 작업할 경우 혈압상승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외출이나 근무 전 준비운동으로 몸의 굳은 근육과 관절을 풀어줌으로써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사고성 요통 등의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봄철 산업재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업(29.81%), 금융 및 보험업(29.21%), 임업(27.35%), 제조업(26.09%)의 순으로 재해발생률이 높았다. 산업비중이 높은 건설, 제조, 서비스의 3대 업종 중에서는 3월에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14,0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밖에 연령대별로는 30대, 근속기간별로는 2년 이상 근무자, 요일별로는 토요일, 시간대는 오전 10시에 각각 재해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휴업 기준 산재현황 첫 산출·발표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해 병가를 내거나 휴직하는 등 일하지 못한 근로자가 3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고 휴업 재해자는 제조업과 50세 이상 장년층에서 자주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휴업 기준 산재재해 현황(2011년도 기준)을 분석하여 지난 3월 14일 발표했다. 산업재해 현황을 병가나 휴직 등 일하지 못한 '휴업 재해' 기준으로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는 가벼운 찰과상이나 약물치료만 필요한 산재 등도 함께 집계한 '요양 재해' 기준 현황을 발표했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산재승인일의 요양 기준으로 산출하던 기존의 산재현황 통계방식이 재해강도(근로손실일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재해의 강도를 고려한 '휴업 재해' 기준으로 산재 통계를 집계해 왔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이 같은 산출법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사고휴업재해자 수는 68,893명이며, 사고휴업재해율은 0.4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0.45%)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 수치를 보면 사고 휴업 재해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만 953명, 6만 4,900명, 6만 7,810명, 7만 1,382명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6만 8,893명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근로손실일수 역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843만 일, 861만 일, 847만 일, 851만 일을 기록하다가 2011년에는 789만 일로 줄었다. 휴업재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재해 유형은 '끼임재해'였으며 3개월 이상 중상해를 유발하는 재해유형은 떨어짐(70.9%), 깔림(60.0%), 끼임(57.3%)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증감현황을 보면 제조업은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건설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휴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은 농림어업(1.33%), 건설업(1.27%), 광업(0.91%) 순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각종 산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휴업근로손실일수가 높은 재해유형(떨어짐, 끼임, 깔림)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재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고용현장과 재해 정도를 반영한 사고휴업재해를 산출·분석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산재예방정책에 좀 더 다양한 산재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구성돼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센터'를 약 100명 규모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으로 개편해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여수, 구미, 울산 등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많은 5곳의 산업단지에는 4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화학물질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즉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해 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 부처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원은 조사와 피해복구는 물론 △대응매뉴얼 △교육훈련 △방재계획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독립조직으로 신설될 전망이다. ☺